

가을을 닫고 겨울을 여는 늘씬한 신사

메타세쿼이아 이야기

전남 담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대나무요. 정답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담양 읍내에 들어서면 대나무가 아닌 늘씬한 신사들이 도열하여 맞아준다. 키가 웅장한 신사들이 정장차림으로 손을 흔들며 맞이한다. 화려한 특급호텔 현관에서 근위병처럼 생긴 벨보이가 맞아주는 것보다 기분이 더 좋다.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2002년 산림청과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본부가 '가장 아름다운 거리 숲'으로 선정했다. 무려 8.5km에 이르는 국도변 양쪽에 키 10~20m에 이르는 아름답디 나무들이 거침없이 창공을 향해 가지를 뻗고 있다. 2차선 국도변을 가득 채우고 있다. 초록으로 옷을 갈아입는 초여름 무렵에 찾아가면 눈부신 초록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다. 뜨거운 햇볕은 막고 사이사이 여린 햇살이 화살처럼 쏟아진다. 윤기 나는 초록의 눈부심에 가슴이 부시다.

쭉쭉 뻗은 가로수 곁에 서면 인간이란 존재가 한없이 작게 느껴진다. 그러나 키 작은 인간을 무시하지 않는 나무에게 존경심을 느낀다. 담양의 메타세쿼이아는 1970년 초 전국적인 가로수 조성사업 당시 내무부의 시범가로로 지정되면서 3~4년생 묘목을 심은 것이 매년 1m 정도씩 자라 지금은 하늘을 덮는 울창한 가로수가 되었다.

한적한 남쪽 도시 담양은 가로수길로 명소가 되었다. 차별 없는 촉박에 젓고 싶은 도시인들이 분주히 찾는다. 아예 주변으로 우회도로를 내서 가로수길에는 사람이 주인이다. 자전거마저 다니지 못하게 통제한다. 떨어진 낙엽도 쓸지 않는다. 수북히 쌓인 메타세쿼이아 잎의 폭신한 감촉을 어디서 느끼고 누릴 수 있으랴. 별 생각없이 심은 가로수가 명소가 되고 관광상품이 되었다. '숲이 희망이다'란 말의 의미를 실감한다.

메타세쿼이아는 은행나무와 함께 살아있는 화석이라 부른다. 1억년전 백악기 공룡시대 화석에서도 발견되었다. 물푸레나무처럼 습생수종이어서 논 배수로로 통해 양분을 빨아드리면서 키가 크다. 다 자라면 그 높이가 무려 30m에 이른다. 그야말로 '물먹는 하마'다. 불과 30년 만에 원시림처럼 무성해져서 창공을 향해 거침없이 팔을 뻗고 있다.

메타세쿼이아는 중국 중부지방 쓰촨성(四川省)과 후베이성(湖北省)의 깊은 골짜기가 원산지다. 작은 가지와 잎은 줄기를 따라 끝에서부터 쌍으로 난다. 잎은 밝은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2002년 산림청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 숲'으로 정한 곳이다.



늦가을 황갈색 이파리를 떨구는 메타세쿼이아



메타세쿼이아 잎 부분

은행나무와 함께 살아있는 화석
1억년전 백악기시대 화석에서 발견
다 자라면 30m가 넘는 큰 키 나무
한국에서는 공원·도로변에 많아

녹색이고 깃털처럼 생겼으며, 가을에 적갈색으로 변한다. 1940년대에 살아 있는 나무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멸종된 것으로 여겼다. 겨우 몇 천 그루만이 중국 중부의 700~1400m 고도지역에 살아남아 있는 나무들이 발견된 뒤 씨와 삽수(挿穗-꺾꽂이)를 통해 전세계에 옮겨 심어졌다.

이름 이야기가 나왔으니 약간의 불만을 토로해본다. 외래종이긴 하지만 걸맞는 우리말 이름이 필요하다. '메타세쿼이아 Metasequoia'라? 낯설고 어색하고 점점 지 않고 발음이 불편하다. 영어 이름은 dawn redwood이다.

이름이 어색하고 어려워져서, 사람들은 '메타세키아, 메타세콰이아, 메타세카이어, 메타세카이아, 메타세카이어, 메타세카이아, 메타세카이아' 등 참 다양하게 부른다. 더 좋은 우리말은 없는지, 무슨 뜻인지? 메타세쿼이아에 관한 우리말은 없다. 북한에서는 간단하게 '수삼(水杉)나무'라고 부르고 있다. 플라타너스는 '방울나무'라고 부르고.

미국에 '세쿼이아'라는 거목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 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에서는 1890년에 '세쿼이아 국립 공원'을 조성했다. 세쿼이아라는 이름은 영화음악 'Indian Reservation-인디언 보호구역'으로 잘 알려진 원주민 체르키족의 추장 이름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이 세쿼이아 나무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이후, 중국에서 이와 유사한 나무의 화석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메타(meta)-점두어,

after, beyond, change의 뜻)세쿼이아'라고 이름 지었다. 'Metasequoia'란 단어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세쿼이아 다음에 나온 나무', '세쿼이아 변종 나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새로 도입되어 식목한지는 얼마되지 않지만, 공원이나 도로변 가로수로 널리 심고 있다.

메타세쿼이아 꽃은 4~5월경에 암수가 함께 피어나는 양성하다. 노란색의 수꽃은 이삭 모양으로 작은 가지 끝에 달려 있고, 암꽃은 가지 끝에 한 개씩만 달린다. 가을엔 붉은빛이 도는 갈색 단풍이 들고, 종금속에 대한 내성이 강하다. 가로수 이외에도 실내 방음장치, 포장재, 내장재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초록이 떠나가고 현란한 단풍마저 가는 곳을 알려주지 않고 가벼운 겨울의 초입, 메타세쿼이아는 최후의 선장처럼 늠름하게 서서 가을을 보내고 있다. 멀리서 보면 황금궁전 같다. 바람이 불면 황갈색 이파리를 우수수 떨구며 가을을 전송하며 겨울이 오고 있음을 알린다. 아주 느리고 조심스럽게 잎을 떨군다. 나뭇잎이 되어도 깨끗하게 겨울을 보낼 자새다.

겨울이 되면 인간은 옷을 겹겹이 껴 입고 나무는 옷을 훌훌 털어버린다.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면 인간은 웅크리지만 나무는 꽃꽂이 자세로 흐트러짐이 없다. 영하의 기온과 눈보라가 어찌 반가우랴만 나무는 꺾질조차 여미지 않는다. 버리지 않고 광공 동여매는 것은 인간의 한계다. 울창한 숲의 터널저 끝에 겨울이 서 있다. 그 끝자락에 새해가 있다. 그 너머 새로 시작하는 시간에는 봄이 있을 것이다. 나무는 그 자리에서 새해를 맞고 인간은 부산을 떨면서 해돋이를 보러간다.

이우성 <소설가·동국대 문학과 겸임교수>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8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중 18권 출간! 협산선사, 투자선사, 취미선사, 조과도립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실증(實證)의 법문 실증실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방거사어록

031-534-3373 www.zenparadise.com

야생보이차와 침향의 명가 錦原堂 다茶보普 향香

다보향 침향(선향)
"제향(諸香)의 왕" 침향 - 순수한 천연향이므로 밀폐된 공간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공기를 흡수하여 정화, 향균작용, 해충근절방지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 집중을 필요로 하는 공부방, 서재, 연구실, 사무실.
- 집안의 거실과 침실, 주방.
- 독서실, 요가원, 수련원, 수행과, 기도실.
- 환자들을 위한 병, 의원, 한의원, 치료원.
- 심신의 안정과 氣의 원활한 순환이 필요할 때.

야생보이차
야생보이차는 해발 1,200m이상 고산지대에서 높이가 2.5m이상 되는 야생교목에 직접 사람이 올라가 일일이 정성스럽게 잎을 채취하여 만든 아주 귀한 차입니다.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철저한 검사와 정신통과, 검역절차를 거쳐 제품화한 믿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차입니다.

별차 330g > 99,000원	산차 50g > 39,000원	산차 50g > 38,000원
		100g > 65,000원
		200g > 110,000원

특징

- 야생보이차는 젊은 여성 - 체중조절과 피부미용.
- 나이든 중년 여성 - 속이 냉하고 손발이 차고 변비가 있을 때 속이 편해지고 손발이 따뜻.
- 직장인 - 잦은 술자리 회식 등의 숙취 해소에 도움.
- 학생 등 - 머리를 맑게 해 줍니다.

판매원 : 마하몰 02)732-1520 www.mahamall.co.kr
금원당다보향 070-8758-8847 www.dabohyang.co.kr

天氣福 天氣福

백초스님의 다라니방편부

신묘부주밀법총해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들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내쳐지지 않는다. 귀신도 피가 많아지고 악성빨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벳밀교와 일본·중국·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집결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만 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일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 태블로이드판 257x364 / 536쪽 / 정가 380,000원

금강주술방편연구회
041) 943-6882 / 010-2002-6332

입금계좌 (예금주: 임현주)
농협 023-02-500940
신한 010-6413-4443